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이 올려가는 만선의 배고동 소리와 더불어 펼쳐진 물고기대풍, 희한한 《이채어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바다항기 차넘치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 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각하

나는 수리아시정운동기념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현직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시정은동후 지난 46년간 귀국정부와 인민은 하페즈 알 아사드각하와 당신의 올바른 지도에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수리아아랍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재확인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105(2016)년 11월 1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로씨야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가 10일 로씨야조 선전쟁로병리사회에서 결성되 었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하고,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리사회 위

원장 예쓰. 엠. 크라마예프가 선출되 었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전문을 올리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 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의 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머니날을 맞으며 모범적인 어머니들, 녀맹원들, 녀성일군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은 나라

전반국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머니날을 맞으며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한 녀성들과 모범적인 어머니들, 녀맹원들, 녀성일군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을 지닌 우리의 어머니들, 녀성들은 혁명의 계승자, 부강조국건설의 기동장들을 역세게 키워 내세우고 주체혁명위 업수행에서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기며 사회주의의 대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꽃피우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 이기 위한 총동원전을 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녀성들이 온 나라의 축복속에 어머니날을 즐겁게 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축하공연도 마련해주신데 이어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사랑에는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령방이며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담담자인 우리 어머니들과 녀성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맡겨진 책임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을 바라는 믿음과 기대가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6일 4.25분회관에서 진행 되였다.

모임에는 최봉태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관계부문 일군들, 조선민주녀성 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한 녀성들, 평양시안의 모범적인 어머니들, 녀맹원들, 녀성일군들, 전국녀맹예술포조총합공연 참가자들이 참가하 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봉태동지가 선물전달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원어머니의 뜨거운 정으로 우리 어머니들과 녀성들에게 대해 같은 은정을 거들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 였다.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마다에는 녀성들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맹님들의 사랑과 대로 어머니날을 제정해주시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도 마련해주시였으며 대회참가자들 과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자들과 온 나라 어머니들, 녀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의 운명과 행복, 미래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 었다.

그는 오늘날의 이 영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

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에 백을같은 총정과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머니로서, 녀성으로서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주시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주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은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영원 히 한길을 가는 조선로동당의 참된 딸, 단리마 시대의 녀성현명가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어머니들과 녀성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붙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한복수메바위를 더욱 억세게 떠밀어나가며 시대의 녀성현명가가 되어야 할것임을 면히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원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참가자들은 경직의 눈물을 흘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일편단심 총지하게 만들어 사회주의강국 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녀성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나 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기자